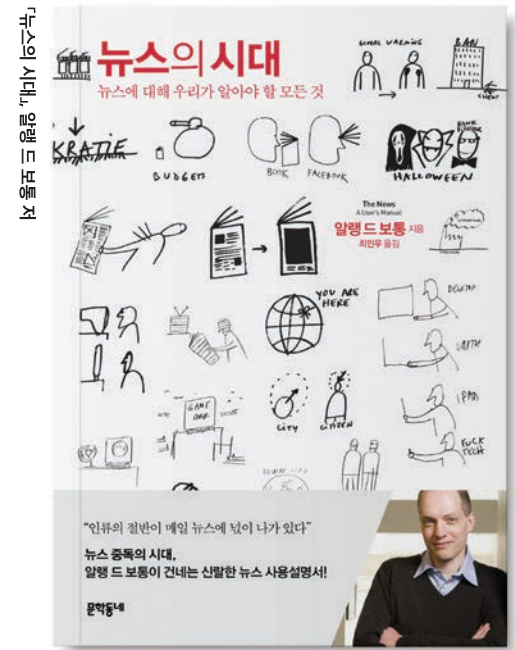




책으로 사회를 읽다 일상의 철학자가 말하는 뉴스 바로 보기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오늘날 우리에게 뉴스 없는 삶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의 인터넷 앱만 접속하면 셀 수 없는 양의 뉴스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우리 손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신문을 펼치거나 저녁에 TV를 켜야만 제한적으로 뉴스를 공급받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뉴스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더욱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동시에 무제한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된 뉴스 / 출처 : Pexels(왼쪽,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대하려면 그 대상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능동적으로 소비하려는 대상의 익숙함에 속아 역으로 길들여지기 십상이다. 우리는 ‘뉴스’란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혹, 기사의 검은 글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글자 뒤의 실제 현장과 사람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뉴스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런 종류의 물음

없이 뉴스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뉴스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과거와는 비교 불가하게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뉴스의 양이 이런 물음을 던질 시간을 빼앗고 있다. 내 마음대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자유는 증가했지만, 반대로 현명한 뉴스 소비에 다가가기는 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더욱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위스 출신 작가이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란 책으로 잘 알려진 알랭 드 보통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뉴스의 시대 (부제 :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를 통해 뉴스를 올바르게 마주하는 자세, 더 나아가 이상적인 뉴스의 모습까지 그리고 있다. 저자는 기자 출신이거나 언론학자도 아니다. 대중에게 ‘일상의 철학자’로 불리는 그는 뉴스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문과 예술을 접목해 분석하고 있다. 또 뉴스를 정치, 경제, 해외, 재난, 범죄 등 여러 분야로 구분해 각각의 뉴스가 지향해야 할 바를 세밀히 조명한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분노하는 이유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먼저 저자가 뉴스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들여다봐야 한다. 핵심은 ‘뉴스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공간은 없다’는 것이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 물밀 듯 밀려들어 오는 뉴스에 우리는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시기심도 느낀다. 이로써 우리 내면의 고요한 공간은 온갖 뉴스로 인한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찬다. 왜 우리는 뉴스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 또 이 감정은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

뉴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선택할 뿐이다. 저자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엄청난 양의 모순된 정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역경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많은 이들이 있다. 또 길에서 난동을 부리고 가게를 약탈하며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나간다. 이렇게 상반된 양상의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함에도 긍정적인 쪽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가 뉴스를 보고 느끼는 감정의 근본적 원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뉴스의 기본 성격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뉴스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올해 국내에서 보도된 뉴스들을 되돌아보자. 물론 각자 접하는 뉴스가 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긍정적인 뉴스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나라 부채는 증가하며, 정치는 여전히 혼란하다. 아마 뉴스를 본 대부분의 한국인이 현재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일까? 저자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밤 9시에 TV를 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뉴스는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실정과 무능이다. 조금만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세상 문제들이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 이를 본 우리는 또 분노에 차오른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정치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게 있다고 말한다. 바로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다. 정치에서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사안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수많은 압박과 환경적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매듭 풀듯이 해결할 수 있는 영웅적 인물은 현실에 없다. 그러나 뉴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면의 맥락과 인간적 한계에 관해 설명하기를 꺼린다.

이 대목에서 인간에 대한 저자의 철학적 관점이 드러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인해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결코 단숨에 뛰어오르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혹, 누군가는 이 부분을 읽고 정치인의 무

능과 비리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자는 뉴스가 정치의 실정을 지적하고 시민의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사는 세계가 이상적이지 않음을 직시함으로써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강박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뉴스는 분노와 함께 때로는 잔잔한 위로도 건넬 필요가 있다.

뉴스 속에서 발견한 보편적 인간성



대규모 폭발로 폐허가 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와 시위 중인 시민들

얼마 전 레바논에서 일어난 큰 폭발 사고가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 있다. 워낙 비극적인 사건이었기에 한동안 매체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처럼 우리가 접하는 해외 뉴스의 대부분은 놀랍고 두려운 사건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낀 놀라움은 잠깐일 뿐, 며칠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되고, 사건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린다. 저자는 충격적인 사건에만 천착하는 해외 뉴스의 경향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먼 나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우선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일상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 나라 이웃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울 것을 요구한다. 특히 뉴스가 문학의 예술적 기법을 동원해 지구 반대편의 타자에서 보편적인 인간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55년 개봉한 영화 ‘줄리우스 시저’

다. 그 예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든다. 작품은 약 2000년 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정치적 음모를 다루고 있다. 아주 오래전 인물에 이름도 낯설지만, 브루투스 일당의 야심과 파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현대인에게 깊은 공감과 흥미를 일으킨다. 이야기 속에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뉴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사고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알리는 것으로 진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없다. 비극 속의 타자가 평소에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 진심 어린 공감대가 형성된다.

다만 이러한 저자의 생각이 현실 저널리즘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은 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잘 두지 않는다. 비극적인 뉴스도 찾아볼까 말까인데, 낯선 곳의 평범한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 일부 호기심 많은 독자를 제외하곤 가능성이 작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뉴스가 답아야 할 새로운 가치, 즉 ‘보편적인 인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 혹시 모른다. 미래에 통신 및 교통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지구 공동체의 삶이 더 가까워진다면, 그래서 바다 건너편 타자가 가까운 내 이웃이 된다면, 언젠가 가능할지도.

저자는 더 나아가 범죄 뉴스에서도 인간적인 보편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끔찍한 범죄자를 다룬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를 따르면 이상적인 범죄 뉴스는 이 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 범죄는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가? 태생적으로 사악한 사람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아니다.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게 태어났다. 저자는 이 지점에 주목한다. 범죄자는 특정한 배경과 상황이 만들어낸다는 것. 즉, 평범한 우리도 어떤 상황으로 인해 잔혹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뉴스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타오르는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며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된다. 범죄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뉴스라면 범죄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뉴스는 단순한 범죄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행위 동기 및 배경 등 인물 자체에 더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접근법은 요즘 논란이 일긴 하다. 얼마 전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의 주모자 조주빈이 검거됐었다. 언론은 조주빈이 어떤 인물인지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의 학창 시절, 봉사활동 등 과거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조주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거뒀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와 아무 관계 없는 과거 행적만 무분별하게 띄워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가 추구하는 범죄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훈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뉴스들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심어줬다. 그러나 뉴스가 항상 우리에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증권시장의 주가, 기업의 매출액 등 숫자를 무미건조하게 나열하기도 한다. 우리가 경제 뉴스를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다. 이러한 정보들은 오직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평범한 우리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저자는 뉴스가 숫자 뒤의 흥미로운 세상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직장인들, 생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이제 막 신약을 탄생시킨 연구원들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차가운 경제 뉴스를 뜨겁게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다. 숫자 뒤에 감춰진 치



뉴스에 드러난 경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 출처 : Pixabay

열한 인간 삶의 현장을 부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지한 사색을 가져다주는 뉴스

혼란스러운 뉴스의 시대, 저자 알랭 드 보통이 꿈꾸는 이상적인 뉴스는 거창하지 않다. 다만 뉴스가 좀 더 인간미와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뉴스는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날 뉴스는 사건만 보이고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두렵고, 잔인하며, 비극적인 사건 뒤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고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는 인간의 모습은 가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매번 분노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인간미를 갖춘 뉴스는 우리에게 진지한 성찰과 사색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뉴스를 본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분노에만 그치지 않는다. 뉴스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과 내면을 발견하며,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 두서없이 쏟아지는 뉴스들로 가득 찬 우리의 정신은 사색의 과정을 통해 차분히 정리돼간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뉴스와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뉴스란 게, 말 그대로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앞서 말한 해외 뉴스의 경우도 그렇고, 정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에 주관적인 인문과 철학을 접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뉴스가 아닌 문학과 예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에 이 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저 없이 말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이 데이터와 숫자로 환원되고 심지어는 AI가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자는 뉴스가 더욱더 인간 본연의 이야기에 파고들 것을 권한다. 사람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서 뉴스가 이 역할을 해낸다면 뉴스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질 것이다. 